

“온전한 일치,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20장 ..... 다함께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 도 ..... 말은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7:23 ..... 다함께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  
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로소이다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

# “온전한 일치,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

---

2026. 1. 9. 신년비전새벽기도회 설교

## 하나됨은 주님의 잊혀진 꿈입니다

---

올해 신년비전새벽기도회의 제목은 “주님의 잊혀진 꿈, 하나됨을 열망하자!” 입니다.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둘째, 그러나 교회는 때때로 이 하나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왜 굳이 하나 되어야 할까?”, “사람이 모이면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능력이나 지혜보다 먼저 하나됨을 구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은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주님의 소중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됨은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주신 생명이며 사명입니다.

## 하나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

예수님은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17:23) 세상은 신학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볼 때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은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기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나이, 형편, 배움, 성격,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바로 이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됩니다.

※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보여 주는 표적입니다.

##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품어 주고, 기다려 주고, 약한 지체를 세우고, 상처 난 사람을 감싸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보여 주는 전도는 말로만 설득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보여 주는 전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 공동체 안에는 내가 갖지 못한 사랑과 기쁨이 있다” 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 주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 하나됨이 깨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다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때 세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갈라질 때, 그것은 단지 관계 하나가 깨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를 덮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침묵으로 교회를 지켰던 목사님이 훗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교회를 내 자존심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 성도의 다툼은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 결론: 하나됨으로 세상을 부럽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체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혼자 앞서기보다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은 때로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문안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상을 부럽게 하는 교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 나눔

- ①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목적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힌트: ① 아버지께서 00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 ② 00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
- ②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보다 작은 말, 섭섭함, 자존심,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내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조심해야 할 내 마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 쉽게 판단하는 마음, 서운함을 오래 붙드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을 닫는 태도, 확인하지 않고 짐작하는 습관, 말하기보다 뒤에서 불평하는 습관)
- ③ 우리 구역이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서로 반갑게 맞아 주는 모습, 약한 지체를 자연스럽게 챙기는 모습,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 새가족이 외롭지 않게 품는 모습, 세대와 형편의 차이를 넘어 함께 기뻐하는 모습)
-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